

뮌헨공과 대학교(TUM)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19학번 홍지민

1. 교환학생 지원 동기

저에게 교환학생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입학하는 순간부터, '난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야지'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여행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도, 현지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도 여행객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그 때의 제 자신에게 너무 고마울 정도로 교환학생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과연 왜 독일을, 뮌헨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저는 향후 미국으로의 유학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좋았고, 주말을 이용해서 각국으로 여행을 가기 좋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영국은 영어를 사용하지만 지리적 위치와 EU가 아니라는 점이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고려한 기준은 두 가지 - 1) 영어로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인가 2) 치안이나 환경 등 '살기에 좋은 나라'인가- 였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독일, 특히 뮌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뮌헨에 있는 여러 대학 중에서 뮌헨 공대가 가장 수업 등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3-2에 가려고 했으나 어쩌다보니 4-1에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께도 1학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옥토버페스트나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는 참여할 수 없지만, 날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무엇보다도 해가 길어서 길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출국 전 준비사항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입니다. 물론 비자를 독일에 와서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교환학생(서울대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타 학교 교환학생까지) 전부 저와 동생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현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테어민 예약이 오래 걸리고, 90일이 될 때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꼭 비자를 받아오시는 편을 추천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출국을 위한 예약을 2월 초 날짜로 잡았었는데, 생각보다 날짜가 촉박해서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출국 날짜와 비자 테어민 날짜는 최소 2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테어민은 11월 말 ~ 12월 초에 신청해야 하니 꼭 미리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슈페어콘토 및 보험 가입 등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미 자세히 나와있으니 말을 줄이겠습니다. (TMI이지만 저도 작성했었네요 😊)

교환교로의 지원과 기숙사 신청 등이 있는데 이는 메일로 무척 자세히 안내가 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간 Informatics 학과의 경우, 일반적인 수강신청 "이전"에 한 학기동안의 팀 프로젝트를 하는 "Practical Course"와 논문 리딩을 위주로 하는 "Seminar" 수업에 대한 수강신청을 미리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입니다. ESN TUMi 라는 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데 이를 통해서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친구도 사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강 전 10일 동안 팀을 나눠서 참여하는 **Party Animals**라는 행사가 있는데 무조건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이 때 만난 친구들이랑 정말 잘 놀기도 했고, 개강 전에 미리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와서 비교적 싼 가격에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련 메일이 오자마자 고민할 것 없이 일단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외에도 TUMi에서 학기 내내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보다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숙사

독일에서 먼 곳(ex 아시아)에서 온 교환학생들에게는 거의 기숙사를 제공해줍니다. 위치가 중요한데 제가 갔을 때는 같은 학교 학생들은 모두 같은 기숙사에 배정해주었습니다. (생명공학과는 위치상 뮌헨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제외). 가고 싶으신 특정 기숙사가 있으시다면, 서울대에서 가는 친구들과 같이 의논해서 요청사항에 함께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요청사항이지 사실 해당 란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인지, 특정 환경에 알려지가 있는 등을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탁은 나중에 처리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주세요. 그렇지만 시도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

저는 Olympisches Dorf / Olydorf / Olympiadorf 에 살았었는데 말 그래도 뮌헨 올림픽이 열리던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 방에 개인 주방 및 화장실이 있고, 학생 클럽, 술집, 도자기 공방, 열람실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집 앞이 올림픽 공원이기 때문에 일출도 일몰도 너무 예쁘고 어느 때나 산책을 하기도 좋습니다. 뮌헨 중심가에서 가까운 위치에, U3라는 중요한 곳을 많이 지나는 지하철 노선역 세권이고 치안이 좋다는 것도 정말 장점입니다. 기숙사 배정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저는 이 기숙사를 적극 추천드려요!! Bungalow(테라스가 2층집)과 Hochhaus(고층 타워 아파트)가 있는데 둘 다 좋지만 봉갈로는 감성, 타워는 편리성에 초점이 좀 더 맞춰진 것 같아요 😊

3. 수강신청, 수업 및 시험

TUM의 장점인지 독일 대학교의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부분이 천국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피터지는 수강신청을 매 학기 경험하는 한국의 대학생에게는 정말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진행되는 Informatics의 특정 수업 몇 개를 제외하고 (다른 학과에도 비슷한 수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강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학생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수강신청 때 학점 제한이 없고, 심지어 같은 시간에 여러 과목을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너가 맞는 것 같은 수업으로 계속 들어라 또는 동영상 있으면 알아서 공부해라라는 뜻입니다.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크게 존중해주는 학교입니다. 또한, 드랍이 학기 중 자유롭고(사실상 필요없음) 시험 신청이 따로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시험 신청 기간에 시험을 보고 싶은 과목만 따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자신이 없거나 청강만 하고 싶은 경우라면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니 일단 수강신청은 최대한 많이 해놓으시고 후에 시험을 볼 과목을 정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또한, 과제가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고, 출석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100%로 성적이 결정됩니다. 수업을 듣는데 있어서 학생의 자율을 많이 보장해줍니다. 다만, 성적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 343으로 대표되는 서울대의 성적 분포와는 다르게 훨씬 적게 줍니다. 우리는 C, D를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Pass를 했다 == 그 과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A+에 해당하는 1.0이 1%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Fail이 4~50%인 경우도 흔합니다.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타 학과랑 비교해서 Informatics의 성적 분포가 예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빡세니" 장학금 등으로 좋은 성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타 학과 수업을 많이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수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성적은 1.0 ~ 5.0 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성적입니다.

- Deutsch als Fremdsprache A1.2 / 외국인들을 위한 독일어 A1.2

이 난이도가 초급독일어1을 수강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교과과정과 진도가 달라서 정확히 호환되지는 않지만, 과거형 등 초독1에서 나오지 않는 중요한 문법적 내용과 회화 내용이 나옵니다. (A1.1에서는 다루지만 초독 1에서는 다루지 못한 내용을 배웠다고 가정하고 수업하시나 따라가는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 Compilerbau I (IN2227) / 컴파일러 구현

전기과의 컴파일러의 기초나 컴퓨터공학과와 컴파일러에 해당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플립러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험과 성적은 reasonable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당 수업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정보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ㅎㅎ)

- Virtual Machines (IN2040) / 가상머신

인간 컴파일러가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셈블리

어로 변환시키는 게 이 수업의 90%이고 시험도 그렇게 나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 중간에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를 백 번 외쳤지만 들어볼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성적 분포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험 신청 인원 중 반 이상이 시험 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석 인원 중에서도 Fail 비율이 매우 높으며, 중앙값이 3.7 정도의 성적 (대략 C-)을 받아가는 수업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Introduction to Deep Learning (IN2346) / 딥러닝의 기초

TUM의 꽃! 입니다. 1500명이 넘는 수강생이 TUM 뿐 아니라 LMU나 아예 외부에서 이 수업을 듣고 시험도 1300명 가량이 신청했습니다. 수업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Tutorial이라고 부르는 실습이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과제가 나오나 막히는 부분은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가며 해결할 수 있고, 과제가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안 하셔도 성적에 지장은 없습니다. 9개 중 8개의 과제를 완수하면 0.3의 성적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꼭 전기정보나 컴퓨터공학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수강하고,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추천드리는 과목입니다. 시험 출석 인원 중 1% 미만이 1.0을 받았고 상위 20%가 2.3, 40%가 3.0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Informatics에서는 1.0의 비율을 제외하고는 정말 예쁜 편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수업을 수강했지만, 시험을 신청한 과목만 기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학기 종료와 귀국 후

현재 보고서를 쓰는 시점으로 성적이 다 나오지도 않았고, 귀국도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보고서를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이 종료된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 (jiminhong00@naver.com 또는 학교 스누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 교환학생 보고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한 교환학생 보내시길 바랍니다.